

4차 산업혁명 인재 육성 돕는다 정원·자원순환으로 쾌적한 도시 만든다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정원·청소 분야 5대 역점시책 제시 정원문화산업도시 도약 집중

전주시·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 청소년 대상 '전주형 미래창의교실' 운영

전주시가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스마일게이트, 미국 MIT와 손잡고 전주지역 청소년을 4차 산업혁명 미래인재로 육성한다.

시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창의·창작·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2년 전주형 미래창의교실(퓨처랩)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시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5일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전주형 창의창작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프로그램 운영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번 미래창의교실에서는 MIT 국제과학기술협회가 협력해 진행되는 글로벌 프로그램까지 기획하게 됐다.



전주시와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창의·창작·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2년 전주형 미래창의교실(퓨처랩)을 운영하고 있다.

워크숍에는 전주지역 중학생 16명이 참여해 △물리학(포물선 운동, 부력) △공학(재료공학, 구조공학, 컴퓨터 공학, 전자기) △화학(생물학 등 4가지 주제의 실험을 경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이공계·인문과학·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유명 과학자들을 배출하는 한편, 세계 각국에서 온 천재들이 다니는 것으로 잘 알려진 MIT(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한다.

MIT 멘토들은 이번 워크숍에서 다뤄지는 4가지 주제의 전공자이자 청소년 친화적인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구조물을 제작하고, 스토리텔링·화학 분야 실험으로 범죄수사대가 되어 과학수사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모의 수사도 진행한다. 이외에도 코딩 기본 원리를 활용한 자동차 등 만들기과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연쇄 작용으로 동작하는 기계를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험 등도 펼쳐지고 있다.

시는 향후에도 전주형 미래창의교실(퓨처랩)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이 청년 창작자들과 만나 꿈과 상상력을 키워주는 동시에 코딩과 가상현실, 캐릭터 창작 등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재로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로 했다.

나아가 전주형 미래창의교실과 더불어 △야호 숲놀이 △야호 책놀이 △야호 예술놀이 △야호학교 △야호 부모교육의 기존 5대 야호정책을 중점 추진함으로써 전주지역 모든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시

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숲놀이, 책놀이, 야호학교, 미래창의교실 등 전주시 야호정책은 아동과 청소년이 시민으로 존중받고 도시의 주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이번 미래창의교실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도와 도전,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고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창의적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스마일게이트 희망스튜디오는 지난 2016년부터 자체적인 창의프로그램인 퓨처랩을 개발·운영해오며 우수한 창의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 왔으며, 지난 2019년부터 전주시와 청년창업지원공간인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 구축, 청년 유망 스타트업 발굴, 전주형 퓨처랩 운영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로 올해 도시바람길 숲과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기저제 생태공원을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전주 대표 정원이 될 '정원의 숲'과 지방정원도 오는 3월과 6월에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함양할 수 있도록 중산공원에 정원문화센터와 조성하고, 초록정원사 양성과정과 정원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정원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릴 제2회 정원박람회도 연다.

정원문화가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아닌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도동 항공대 인근 부지를 시민들이 만족하는 아름다운 공원녹지구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림환경 및 녹지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구축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등이다.

먼저 시는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정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대표적

으로 올해 도시바람길 숲과 혁신도시 미세먼지 저감숲, 기저제 생태공원을 마무리한다. 이와 함께 전주 대표 정원이 될 '정원의 숲'과 지방정원도 오는 3월과 6월에 각각 착공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시민들이 정원문화를 함양할 수 있도록 중산공원에 정원문화센터와 조성하고, 초록정원사 양성과정과 정원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6월에는 정원의 가치를 시민들에게 알릴 제2회 정원박람회도 연다.

정원문화가 단순히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이 아닌 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도동 항공대 인근 부지를 시민들이 만족하는 아름다운 공원녹지구현 △자연이 살아 숨쉬는 산림환경 및 녹지공간 조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도시 구축 △시민편익 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청소행정 추진 등이다.

먼저 시는 시민들이 도심 곳곳에서 정원을 향유할 수 있도록 천만그루 정원도시 사업을 집중 추진한다. 대표적

전주시, 농업기계 임대료 50% 인하 6개월 연장

전주시가 일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위한 반값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와 일손 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한 농업기계 임대료 50% 인하 사업을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063-281-6721~3)로 사전 접수한 뒤 장동 농업기술과

본소와 중인동 전주농협 모약참고 내분소 중 한 곳을 방문하면 된다. 임대는 농가 1인당 1대까지 가능하며, 기간을 기종별로 최대 3일까지 빌려 쓸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설맛이 특별판매행사 진행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유희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31

일까지 전주푸드 경기장점과 송천점, 온라인 전주푸드마켓(jfoodmarket.co.kr)을 통해 설맞이 특별판매행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전주푸드 설맞이 특별전에는 500여 품목의 지역농산물과 가공품이 판매되고, 제철 과일 선물세트와 한우 선물세트 등 다양한 명절 선물세트도 마련됐다. 또한 수산물 세트도 새로 선을 보이고, 전주에서 생산된 김부각 세트, 누룽지 세트 등도 판매된다.

이번 전주푸드 명절 특별판매전은 직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주푸드마켓과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김윤상 기자

'다가여행자도서관' 개관

전주시, 전라감영 인근 옛 다가치안센터 리모델링

전주 앞 첫마중길에 이어 전주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 찾는 전주 구도심에도 여행자를 위한 특별한 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는 20일 전라감영 인근에 위치한 옛 다가치안센터 건물(완산구 전라감영2길 28)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다가여행자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

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식을 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 인원만 초청된 이날 개관식은 발열체크, 손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연면적 14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로 지어진 다가여행자도서관은 △여행을 설계하고 꿈꾸는 공

간인 '다가독(讀)방' △여행자를 맞이하는 공간인 '다가오면' △여행을 소용하는 공간인 머물러야 △새로운 여행을 바람하는 공간인 '노을다' 등으로 구성됐다.

'여행'을 주제로 한 이 도서관은 △국내·외 여행지를 소개하는 여행안내서가 있는 '함박떡 여행'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여행도서로 여행자의 흥미를 유발하는 '색다른 여행' △잡지 머무르며 쉽게 읽을 수 있는 여행 매거진과 그림책으로 구성된 '잠깐만 여행' 등의 주제로 총 1761권이 비치됐다.

다가여행자도서관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 문을 열어 오후 6시까지 개방된다. 개관을 기념해 지역청년예술가인 이지현 작가의 특별 전시회도 열린다.

시는 향후 다가여행자도서관에서 여행을 주제로 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만나는 공동체 거점공간이자, 내 인생을 바꿀 한 권의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소"라며 "전주 곳곳에 특화도서관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을 바꾸고, 여행자들의 목적지가 되는 다양한 도서관을 만들어 책의 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20일 전라감영 인근에 위치한 옛 다가치안센터 건물(완산구 전라감영2길 28)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다가여행자도서관에서 김승수 전주시장, 강동화 전주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서관 개관식을 했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